# GWANGJU

## FOOTBALL CLUB

M O N T H L Y  M A G A Z I N E

DECEMBER 2016 No.9
www.gwangjufc.com

**REVIEW**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2016년

**SPECIAL INTERVIEW**
남기일 + 정조국 + 여름

**STATS**
광주FC 2016시즌 데이터 총정리

문화체육관광부 KSPO
※ 본 제작물은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재원을 지원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광주FC 2016시즌 데이터 총정리!

2016년 광주FC의 기록을 총정리했다. 올 한 해 광주가 K리그 클래식을 치르면서 무엇이 잘 됐고,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한 번에 살펴보도록 하겠다.

## 11승 14무 13패 중 선제득실점 시 승무패

| | | |
|---|---|---|
| 선제득점 승 | 10 | 승률 82.1% |
| 무 | 3 | |
| 선제득점 패 | 1 | |

| | | |
|---|---|---|
| 선제실점 승 | 1 | 승률 23.8% |
| 무 | 8 | |
| 선제실점 패 | 12 | |

| | | |
|---|---|---|
| 전반리드 승 | 4 | 승률 78.6% |
| 무 | 3 | |
| 패 | 0 | |

| | | |
|---|---|---|
| 전반뒤짐 승 | 0 | 승률 22.7% |
| 무 | 5 | |
| 패 | 6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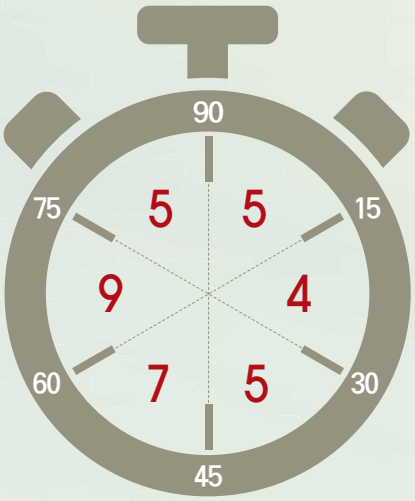
| | | |
|---|---|---|
| 전반 동점 승 | 2 | 승률 62.5% |
| 무 | 1 | |
| 패 | 1 | |

| | | |
|---|---|---|
| 전반 0-0 승 | 5 | 승률 46.9% |
| 무 | 5 | |
| 패 | 6 | |

| | | |
|---|---|---|
| 0-0 무 | 3 | |

## 시간대별 득실점

41득점(평균 1.08득점)




전반 추가시간 1
후반 추가시간 5

## 홈/원정 승률

| 구분 | 승 | 무 | 패 | 득 | 실 | 승률 |
|---|---|---|---|---|---|---|
| 홈 | 4 | 11 | 4 | 15 | 16 | 50.0% |
| 원정 | 7 | 3 | 9 | 26 | 29 | 44.7% |

#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둔 광주FC의 2016년

드디어 2016시즌 K리그 클래식이 막을 내렸다. 광주FC는 목표였던 클래식 잔류를 해냈다. 잔류만 한 것이 아니다. 창단 이후 역대 최고의 성적을 거두며 성공적인 시즌을 보냈다.

광주는 올 시즌 11승 14무 13패 승점 47점으로 8위를 기록했다. 지난해 10위로 간신히 잔류한 것과 비교하면 한 단계 발전한 모습을 보이며 시즌을 치렀다고 할 수 있다.

광주가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데는 영입한 우수 선수가 기존 선수와의 조화를 이루면서 팀이 전체적인 전력 상승을 이룬 것에서 찾을 수 있다. 광주는 정조국, 김민혁을 영입했고 두 선수는 최고의 시즌을 보냈다. 정조국은 20골 1도움으로 득점왕을 차지했다. 김민혁은 3골 8도움으로 공격의 한 축을 담당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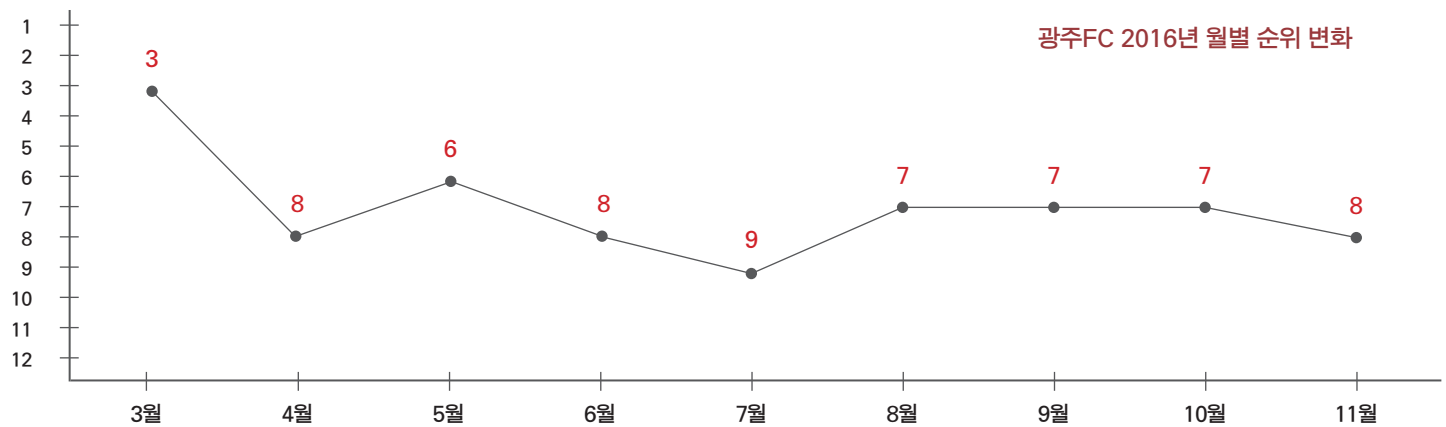
여기에 남기일 감독 체제가 안정적으로 접어들면서 조직적인 경기를 펼칠 수 있었다. 광주가 전력이 상대적으로 약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던 것은 남기일 감독이 공들인 조직력에서 기인한다.

사실 광주가 좋은 출발로 시즌을 시작하지는 못했다. 초반 5경기에서 1승 1무 3패를 하며 흔들림을 보였다. 하지만 5월 5일 상주전 1-0 승리를 시작으로 인천(1-0 승), 수원FC(1-0 승)에 승리하면서 분위기를 반전했다. 이후 승, 무, 패를 번갈아 하며 차곡차곡 승점을 쌓아갔다. 제주, 성남 등 중위권 경쟁을 하던 팀들에 승리를 한 것도 컸다. 하위권과 승점 차를 벌리면서 강등권에서 벗어났다.

시즌 막판에는 위기도 맞았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며 귀중한 무승부를 연이어 거뒀고 8위라는 결과물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올 시즌에 보여준 광주의 모습은 내년에 더 큰 희망을 갖게 했다.

**광주FC 역대 순위**

| | |
|---|---|
| 2011년 | 11위 |
| 2012년 | 15위 |
| 2013년 | 챌린지 3위 |
| 2014년 | 챌린지 2위 |
| 2015년 | 클래식 10위 |
| 2016년 | 클래식 8위 |



# “2017년에는 그룹A 진출이 목표!”

NAM KI IL

광주FC에 창단 이후 최고의 성적을 안긴 남기일 감독. 광주는 8위를 기록하며 2011년 K리그 참가 후 가장 높은 순위를 기록했다. 하지만 남기일 감독은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그에게는 더 큰 목표가 있었다. 광주가 진정한 강팀이 되기 위한 조건인 그룹A 진출이다. 올 시즌 아쉽게 그룹A 진출을 놓친 만큼 내년에는 6위 이내의 성적을 내 그룹A에 진출, 진정한 강팀의 면모를 갖추겠다는 목표다.

**올 시즌을 마친 소감은?**

속이 후련하다. 시즌을 준비하면서 가졌던 자신감과 시즌 중에 느꼈던 그룹A 진출 실패에 대한 아쉬움, 잔류에 대한 압박, 나름의 성과에 대한 만족 등 복합적인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간다. 후련하다. 아쉬움도 있지만 내년 시즌 더욱 많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다.

**정조국이 MVP, 베스트11 공격수, 득점상 등 3관왕을 차지했는데?**

축하해주고 싶다. 구단과 나 모두에게 정조국의 이적은 도박이었다. 반드시 성과가 있어야 했고, 책임도 뒤따라야 했다. 하지만 선수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다. 정조국은 베테랑이기도 하지만 자기 관리도 철저하다. 골에 대한 감각도 뛰어나다. 올 시즌 정말 잘해줬다. 반짝 스타가 아닌 재기에 성공하고 롱런 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겠다.

**정조국이 자신의 활약상은 남기일 감독 덕분이라고 말했는데?**

어떻게 내 덕분이겠는가. 선수 본인의 의지와 노력, 희생 등이 뒷받침 됐기 때문에 활약이 가능했다. 시즌 중 부상이 조금 있었는데 이 부분도 본인이 잘 이겨냈다. 득점왕이라는 수식어가 붙으면서 부담이 있었을 텐데 이 부분도 정신적으로 이겨냈다. 나는 선수가 그라운드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보탬을 주는 역할이다. 정조국의 활약으로 많은 것을 얻었다.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다.

**정조국이 롱런을 하려면 무엇이 필요하겠는가?**

감독과 선수 그리고 팀이 어려움을 함께 공감해야 한다. 함께 이끌어 가야 한다. 정조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선수가 마찬가지다. 선수 간에도 함께 팀을 위해 고민하고 생각하고, 노력한다면 분명 내년은 더욱 좋은 시즌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도와 줄 수 있는 것은 선수가 활약을 보일 수 있도록 방향을 알려주는 것이다. 개인적인 능력에서는 감독이 도와줄 부분이 없는 것 같다. 그만큼 훌륭한 선수다.

**주장인 여름이 군입대한다. 차기 주장으로 마음에 둔 선수가 있는가?**

고민이 되는 부분이다. 여러 선수를 검토하고 있다. 고참 선수들에게 주장 완장을 맡기자니 부담을 주는 것 같다. 중간 정도의 선수 중에 적임자를 고민하고 있다.

**내년 목표는 무엇인가?**

내년 목표는 그룹A 진출이다. 올해 아쉽게 오르지 못했는데 내년에는 오르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는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 전술적인 측면에서는 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현재의 전술을 더욱 가다듬고 보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선수단 구성이 중요하다. 올 시즌 성적도 부족하지만 더블 스쿼드를 갖췄기 때문에 가능했다. 선수 보강을 마치고 체력적인 부분을 강화한다면 내년도 기대해 볼만하다. 시즌이 끝났지만 동시에 시작이다. 서둘러 팀을 추스르고 내년 시즌을 위한 준비에 나설 것이다.

# YEO REUM

## 충성! 군대 잘 다녀오겠습니다!

광주FC의 캡틴 여름이 올 시즌을 끝으로 잠시 동안 팀을 떠난다. 여름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군입대를 할 예정이다. 그는 상주 상무에 입대해 국군체육선수로 약 2년간 군생활을 할 예정이다. 내년 K리그 클래식 무대에서는 군인으로 변신한 여름이 광주를 상대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여름은 "시원섭섭하다. 그룹A 진출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올 한 해를 돌아본 뒤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임하면 내년에 그룹A 진출이 가능하리라 본다"며 광주의 더 나은 발전을 바랐다.

**올 시즌을 마친 소감은?**

군입대하기 전 마지막 시즌이라 그런지 유독 특별했던 것 같다. 책임감 등 마음가짐 같은 것들이 예년과 달랐다. 한 마디로 정의하자면 시원섭섭하다.

**올 한 해를 보내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좋은 기억도 많지만 아쉬움이 조금 더 큰 것 같다. 지난 시즌 (임)선영 형이 주장으로서 팀 잔류라는 목표를 달성했다. 내가 주장이 된 뒤 그룹A 진출을 목표로 했는데 그것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가장 기억에 남는다.

**그래도 좋았던 일을 꼽자면?**

37라운드 포항 스틸러스와의 경기에서 (정)조국 형이 경기 종료 직전 극적인 골을 기록했다. 그 덕분에 우리는 클래식에 2년 연속 잔류를 할 수 있었다. 그때의 기쁨은 2014년에 승격을 확정했을 때와 같은 기분이었다. 개인적으로는 광주에서만 프로 통산 100경기라는 것을 이루어냈을 때였다. 사실 100경기라는 것이 누군가에게는 큰 일이 아니지만 적어도 내게는 엄청난 일이었다. 잘 참고 버텨왔다는 생각에 기뻤다.

**주장으로서 힘들었던 점이 있었나?**

코칭스태프와 선수들 사이에서 가교 역할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쉽지 않았다. 말 한 마디로도 오해가 생길 수 있기에 주의를 기울였다. 팀이 이길 때는 큰 문제가 없었지만 연패를 당하는 등 하락세일 때 모든 것이 나 때문인 것 같다는 자책을 하기도 했다.

**입대를 앞두고 있는데 심정은?**

군입대를 앞두고 있다고 해서 특별한 생각이나 감정을 느끼는 것은 아니다. 당연히 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오히려 긍정적인 마음이다. 줄곧 광주라는 한 팀에만 머물렀는데 상주 상무라는 새로운 팀을 경험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선수들과 새로운 장소에서 만나는 것이 설레기도 하고 긴장도 된다. 즐길 생각이다.

**상주에 가면 광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데.**

이번 시즌 제주 유나이티드로 이적한 (김)호남이가 광주를 상대할 때 껄끄럽다고 말하더라. 나도 그런 느낌을 받을 것 같다. 그리고 상주 가서도 광주 팬들에게 "여름은 여전히 잘하는 구나"라고 인정 받고 싶다.  광주 팬들을 상대팀으로 만나는 기분은 의외로 짜릿할 것 같다.

**본인이 생각하는 차기 주장은?**

이번 시즌 내가 출전하지 않았을 때 남기일 감독님께서 송승민, 이찬동, 정호정을 테스트하셨다. 아마 그 셋 중 한 명이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다. 각자의 장단점이 있겠지만 카리스마 있는 주장으로는 찬동이가 잘 어울리고, 배려 넘치는 주장으로는 승민이가 좋은 것 같다. 주장 완장의 무게를 느껴보길 바란다(웃음).

**팬들에게 군입대 인사를 남겨달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자리를 지켜주시고 또 많은 응원을 해주셨다. 한결같은 그 모습에 정말 감사하다. 그리고 군대 갔다고 나를 잊지 않으셨으면 한다. (웃음) 동료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 우리는 잘하는 선수들이 모인 팀이 아니지만 하나가 됐을 때는 가장 무서운 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경기 결과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항상 도전하는 자세로 임하면 내년에 그룹A 진출이 가능하리라 본다. 감독님께도 한 마디 하고 싶다. 볼품 없었던 나를 한 팀의 주장으로 그리고 100경기 넘게 뛸 수 있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다.

# “지난해의 아픔이 3관왕 수상으로 이어졌다”

JUNG JO GOOK

2916년 K리그 클래식은 정조국의 해였다. 정조국은 20골로 득점왕에 오르며 최고 공격수가 됐다. 당연히 베스트11 공격수 부문의 한 자리도 정조국의 차지였다. 여기에 시즌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에게 수여하는 최우수선수(MVP)도 정조국의 것이었다.

지난해 서울에서 힘든 시간을 보낸 뒤 부활을 다짐하며 광주에 온 정조국. 그는 스스로와의 약속을 지켰고 개인 성적, 팀 성적 모두를 거머쥐었다.

올해 K리그 클래식을 평정한 정조국은 이 분위기를 내년으로 이어가 더 나은 활약을 하겠다고 다짐했다.

**클래식에 잔류했는데 어떠한가?**

올 한 해 많이 힘들었다. 개인적으로 참 힘든 한 해였던 것 같다. 특히 스플릿 라운드 이후 잔류를 조기에 확정하지 못하고 무승의 부진이 이어질 때는 제대로 잠도 자지 못했다. 다음 시즌을 준비하기 전까지 잔류의 기쁨을 만끽하고 싶다.

**올 시즌 광주 돌풍의 주역이었는데?**

늘 하는 이야기지만 광주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다. 내가 이곳에서 이뤄낸 모든 것은 나 개인이 아닌 팀으로 만든 결과다.

**K리그 대상 시상식에서 MVP, 베스트11 공격수, 득점상 등 3관왕을 달성했는데?**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다.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응원해주신 덕분에 이런 영광을 누릴 수 있었던 것 같다.

**수상 당시 울컥하는 모습을 보였다. 어떤 생각을 했는가?**

기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수상자의 이름을 들었을 때 많이 놀랐다. 사실 오랜만에 시상식에 갔기에 감독님들과 동료들을 만나 즐기겠다는 생각만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상을 받아 정신이 없었다. 작년에 참 많이 힘들었는데 그때가 생각나서 그랬던 것 같다. 그때의 아픔이 있었기에 오늘의 내가 있다고 생각한다.

**서울을 떠나 광주 이적을 결심했을 때를 회상해본다면?**

친정팀 서울을 떠나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 지금 다시 선택하라 해도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렇지만 축구선수로서 그라운드에 나서고 싶었다. 자신도 있었다. 더욱 간절한 마음으로 시즌을 준비한 것 같다. 내년이 더 기대되는 선수가 되겠다.

**신인상 이후 상복이 없었다. 축구 인생을 돌아봤을 때 이번 3관왕은 어떤 의미로 다가오는가?**

내 축구 인생에서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다. 다시는 이런 날이 오지 않을 것 같다. 지금 이 기분을 즐기고 싶다. 그리고 반짝 활약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K리그 베테랑인 이동국 선수처럼 되고 싶다. 좋은 길을 닦아놓은 이동국 선배를 롤모델로 삼아 더 멋진 모습을 보이겠다.

**가족을 항상 언급하는데, 아내의 어떤 말이 힘이 됐나?**

가장이라면 책임감과 그 무게를 느낄 것이다. 나도 마찬가지다. 더 책임감 있게 노력하려 한다. 내 원동력은 가족이다. 미안하면서도 가장 고마운 존재다. 힘들 때나 좋을 때나 항상 옆을 지켜주는 내 편이라 생각한다.

# 2016년 평정한 정조국 롱런 위해 필요한 3가지 조건

지난해까지 기량이 하락세를 보였던 정조국은 광주FC 유니폼을 입은 뒤 제2의 전성기를 알렸다. 그의 모습은 지난 유럽 무대에서 실패한 뒤 2009년 완벽한 부활을 알리며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는 이동국(37, 전북 현대)을 떠올리게 한다.

정조국은 과거 프랑스 리그1 AJ 오세르와 AS 낭시에서 활약하며 유럽 무대에 도전했다. 당시 많은 기대를 모았지만 결과는 국내 무대 복귀였다. 이후 FC서울과 안산 무궁화를 거치며 반등을 노렸지만 그마저도 녹록하지 않았다. 그렇게 잊혀진 공격수가 되는 듯했지만 올 시즌 광주 유니폼을 입고 반전에 성공했다.

정조국은 이 성과에 만족하지 않았다. 반짝 활약이 아니라 오랫동안 그라운드에서 뛰기를 원했다. 구체적인 롤모델도 있다. 그는 "K리그 베테랑인 이동국 선수처럼 되고 싶다. 좋은 길을 닦아 놓은 이동국 선수를 롤모델로 삼아 더 좋은 활약을 보이겠다"라는 포부를 밝혔다.

그렇다면 정조국이 이동국처럼 롱런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이 필요할까.

### 꾸준함 위한 부상 경계

첫 번째 조건은 기복 없는 꾸준함이다. 그 꾸준함을 위해서는 철저한 몸관리는 당연하다. 특히 큰 부상을 경계해야 한다. 정조국이 수 개월의 회복 기간을 가져야 할만큼 큰 부상을 당하면 젊은 선수들에 비해 회복 속도가 더디다. 세계적인 선수들도 심각한 부상 뒤 경기 감각 회복에 어려움을 겪는 것을 보면 고개가 끄덕여질 것이다.

이동국의 기록이 이를 뒷받침한다. 이동국 역시 전북 유니폼을 입고 몇 차례 부상을 당하기는 했지만 경기력을 되찾는데 어려움을 겪을 만큼 큰 부상을 당한 적이 없다. 이에 이동국은 여덟 시즌 동안 두 자릿수의 득점포를 가동할 수 있었다.

### 더 거칠어질 상대 수비 이겨내기

두 번째는 더 거칠어질 상대 수비를 이겨내는 것이다. K리그 수비수들은 다음 시즌부터 정조국을 그저 '베테랑 선배'가 아닌 '지난 시즌 득점왕'으로 볼 것이다. 기존보다 상대의 압박이 더 거칠어질 것이다.

이번 시즌 황의조(24, 성남 FC)가 그랬다. 그는 지난 시즌 34경기 출전 15골 3도움을 기록하며 승승장구했지만, 이번 시즌 자신을 더 강하게 압박하는 상대 수비들을 이겨내지 못했다. 이에 지난 시즌보다 3경기 더 많이 출전했음에도 9골에 그치고 말았다.

당시 성남 수장이었던 김학범 감독은 황의조를 보고 "스스로 알을 깨고 나와야 한다. 상대를 이용할 줄 알아야 한다"라고 충고했다. 이는 13년 프로 생활 동안 두 자릿수 득점을 단 세 시즌 밖에 하지 못했던 정조국에게도 해당되는 말이다.

### 팀 동료들의 지원

골은 혼자 넣을 수 없다. 동료의 지원은 필수적이다. 골을 넣는 선수는 1명이지만 그라운드에 있는 11명이 모두 관여한다. 정조국이 올해 좋은 활약을 한 것도 동료들의 지원이 컸다. 이것이 내년에도 이어져야 정조국의 득점포 가동은 계속된다. 광주는 대부분 어린 선수들이지만, 남기일 감독의 지도 아래 가파른 성장을 보여 내년을 기대하게 하고 있다.

올해 정조국의 골에 큰 공을 세웠던 김민혁은 "다음 시즌 더 많은 공격포인트를 쌓아 조국 형의 득점에 힘을 보태고 싶다"고 말했다.

# GWANGJU FC 2016 SQUAD

감독

남기일

수석코치

이정효

코치

마철준

골키퍼 코치

기우성

피지컬 코치

길레미

주치의

이준영

1 GK 최봉진

1992.04.06 193cm/83kg

2 DF 정호정

1988.09.01 180cm/76kg

3 DF 김영빈

1991.09.20 184cm/79kg

5 DF 박동진

1994.12.10 185cm/75kg

6 DF 오도현

1994.12.06 188cm/82kg

7 MF 여름

1989.06.02 175cm/69kg

8 DF 이으뜸

1989.09.02 177cm/70kg

9 FW 정조국

1984.04.23 186cm/78kg

11 MF 조성준

1990.11.27 176cm/67kg

12 DF 이민기

1993.05.19 175cm/71kg

13 MF 주현우

1990.09.12 174cm/71kg

14 DF 김진환

1989.03.01 186cm/78kg

16 MF 송승민

1992.01.11 187cm/77kg

17 DF 이종민

1983.09.01 175cm/68kg

18 DF 정동윤

1994.04.03 175cm/70kg

19 MF 박선홍

1993.11.05 176cm/76kg

20 MF 김정현

1993.06.01 185cm/80kg

21 GK 윤보상

1993.09.09 184cm/84kg

22 MF 조용태

1986.03.31 180cm/69kg

23 MF 김민혁

1992.08.16 183cm/71kg

24 FW 조주영

1994.02.04 186cm/76kg

25 DF 홍준호

1993.10.11 192cm/85kg

26 FW 김성현

1990.07.01 175cm / 68kg

27 MF 김진수

1995.02.28 182cm/77kg

28 MF 김의신

1992.11.26 181cm/70kg

29 FW 김시우

1997.06.26 180cm/71kg

30 FW 심광욱

1994.01.03 175cm/66kg

31 GK 황인재

1994.04.22 188cm/80kg

32 FW 김상욱

1994.01.04 178cm/75kg

33 MF 와다

1994.10.30 172cm/60kg

34 MF 본즈

1990.02.07 187cm/73kg

40 MF 이찬동

1993.01.10 183cm / 80kg

광주FC SNS 채널

@GWANGJU_FC

www.facebook.com/gwangjufc

plus.kakao.com/home/@광주축구

## 2016시즌 광주FC를
## 응원해주신 팬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